



# 플러싱 내 코로나 19 의 최신 동향 및 영향

## 주요 포인트

- 2020 년 플러싱 지역의 주민 수는 258,500 명이었으며 뉴욕시의 모든 지역을 통틀어 가장 높은 이민자 수를 기록하였다(2019 년 기준 134,100).
- 해당 지역의 회사 수는 9,250 개로 2000 년에서 2019 년에 걸쳐 81.8%나 증가했으며 이는 퀸스나 뉴욕시 전체보다 훨씬 빠른 추세이다.
- 플러싱 지역의 민간 부문 일자리는 2000 년에서 2019 년에 걸쳐 70.9% 증가해 총 84,300 개의 일자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퀸스 전체와 뉴욕시 성장률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
- 해당 지역은 뉴욕시의 모든 지역 중에서 55 세 이상 주민 비율이 네 번째로 높은 지역(35.9%)이다.
- 지역 내 40%가 넘는 임차 가구가 심각한 임대료 부담에 직면하였으며 임대료는 2019 년 가구 소득의 최소 반을 차지하는 수준이었다. 이는 뉴욕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 레저/관광/호텔 산업 부문은 2020 년의 지난 3 분기 동안 작년과 비교해 해당 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일자리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 이때 직원이 5 명 이상인 회사의 수는 24% 감소하였으며(2020 년 지난 3 분기 vs 2019 년), 직원이 5 명 미만인 회사는 8% 증가해 뉴욕시 전체의 16% 감소, 9% 증가보다 심각하다.
- 해당 지역 인구의 89.4%가 10 월 17 일부로 완전히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이며 이는 퀸스 및 뉴욕시 전체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 또 플러싱 지역의 2020-21 학년도 공립학교 등록 현황은 3% 감소하였다(뉴욕시 전체는 5% 감소).
- 프로그램 개시 이래로 퀸스에 승인된 정부 임금 보호 프로그램 지원금 전체의 12.4%는 플러싱 지역 사업에 제공되었으며 레스토랑 재부양 기금의 29.5% 역시 플러싱 지역 사업에 제공되었다.

퀸스 북부에 위치한 플러싱 지역(Greater Flushing Area, 플러싱뿐만 아니라 근교까지 포함)은 주요 상업 중심지인 다운타운 플러싱의 변화한 상업 지역과 잘 발달되고 매력적인 주거 지역들이 포함된 곳이다.

플러싱, 칼리지 포인트, 화이트스톤, 머리 힐 및 어번데일을 가로지르는 해당 지역은 뉴욕시에서 중국인, 한국인, 대만인, 태국인 및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다(미국 출생 주민과 해외 출생 주민 모두 포함). 해당 지역 인구의 반 이상은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에 플러싱 지역은 활동적이고 다양한 경제와 함께 아주 건실한 사업 및 일자리 성장세를 자랑하는 곳이었다. 해당 지역의 사업 및 일자리 성장세는 2000 년 이래로 뉴욕시 전체 성장세의 두 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지역 역시 나머지 도시와 마찬가지로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2020 년 2 분기에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 수가 거의 4 분의 1 이나 줄어든 상태였다. 그 이후로 일자리는 퀸스 및 뉴욕시 전체보다 빠른 추세로 회복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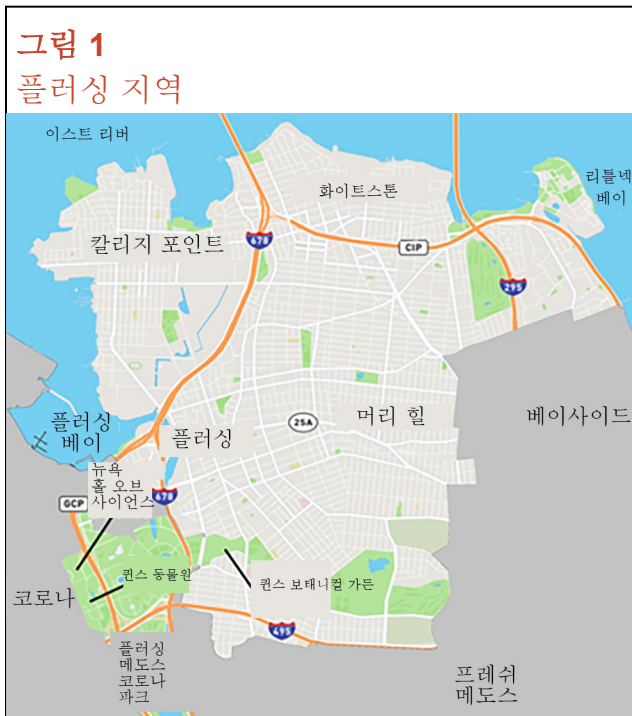
그러나 코로나 19 가 플러싱 지역의 공중 보건에 미친 영향은 그보다도 훨씬 심각하다. 해당 지역 내 여러 공동체의 누적 사망 및 확진율은 자치구 및 도시 전체의 누적 사망 및 확진율보다 높았으며 입원율도 더 높았다. 확진율은 뉴욕시 전체 비율과 마찬가지로 2021 년 상반기에 점차 줄어들었으나, 7 월에 확진자 수가 새롭게 급증한 후 9 월 하반기부터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해당 지역의 백신 접종률은 퀸스 및 뉴욕시 전체의 접종률보다 훨씬 높았으므로 코로나 19 확산을 줄일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정부의 사업 및 주민 구호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해당 지역의 복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지역 배경

플러싱 지역은 미국 인구 조사국이 정의한 뉴욕시 내 55개 지역 중 하나로 지역구 7을 포함한다. 해당 지역은 퀸스 북부에 위치하였으며 서쪽 경계에는 플러싱 베이, 북쪽 경계에는 이스트 리버, 동쪽 경계에는 리틀넥 베이, 그리고 남서쪽 경계에는 플러싱 메도스 코로나 파크를 두고 있다(그림 1 참조).

다운타운 플러싱은 교통 중심지로 전철역과 LIRR 정차역이 분포되어 있어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또 쇼핑 및 외식 장소가 많은 해당 지역의 주요 상업 중심지이기도 하다. 메인 스트리트에는 아시아인 소유 사업과 레스토랑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



## 허리케인 이다의 영향

플러싱 지역은 나머지 도시와 마찬가지로 인프라 노후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허리케인 이다의 막바지 영향이 최근 플러싱 지역에 얼마나 심각하면서도 편파적인 피해를 입혔는지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sup>1</sup> 갑작스러운 홍수가 여러 지하 아파트를 덮치면서 많은 이들이 사망하였고, 키세나 파크 근처 여러 거리의 주택이 홍수에 심각하게 잠기면서 주민 재산 및 주택 투자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에 [뉴욕시](#)와 [뉴욕주](#) 모두 허리케인 이다의 피해 복구 자원 정보 및 링크를 마련하였다.<sup>2</sup>

뉴욕시의 우수 관리는 7,400 마일 길이로 뺀 하수관의 하계망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중 60%는 합류식 시스템(생활 배수와 우수가 만나는 하수도)으로 구성되어 있다.<sup>3</sup> 해수면 증가와 1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수준의 극심한 기상 악화 사태가 더욱 잦아지면서 하계망에 큰 부담이 되었고 이에 따라 갑작스러운 홍수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었다. 뉴욕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5월 홍수 위험 [지도](#)와 [우수 대응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그 이후로 해당 계획 시행을 가속화해 왔다.<sup>4</sup> 또 2021년 10월에는 2022년 9월까지 도시 최초의 기후 적응 계획을 발표하고 이후로 10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갱신해야 함을 필수로 지정하는 지방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 인구통계학적 추세

해당 지역 내 이민자 수는 거의 20년에 걸쳐 계속 증가하며 플러싱 지역 인구에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스스로가 아시아인이라고 밝힌 주민들의 수는 해당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늘어난 상태이다. 해당 지역은 도시에서 중국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인 동시에 한국인, 대만인, 태국인 및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인

<sup>1</sup> 해당 사건은 2021년 9월 1일 근처 라구나디아 공항 측정 자료에서 6.8 인치의 강우량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1940년 1월 1일 이래로 해당 지역에서 측정된 강우량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sup>2</sup> 뉴욕시 비상관리팀, '폭풍 후 자원' <https://www1.nyc.gov/site/em/resources/ida.page> 및 뉴욕주 주지사, '허리케인 이다 관련 주지사 구호 및 대응 자원' <https://www.governor.ny.gov/programs/governors-relief-and-response-resources>.  
<sup>3</sup> 뉴욕시 시장 Office of Resiliency(가난, 비상, 재난 등에 대응해 지역사회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자 하는 부서), 뉴욕시 우수 대응

계획, 2021년 5월 6-7일, <https://www1.nyc.gov/assets/orr/pdf/publications/stormwater-resiliency-plan.pdf>.  
<sup>4</sup> 3번 메모와 '뉴욕시 홍수 위험 지도' 참고 바람. <https://experience.arcgis.com/experience/4b290961cac34643a49b9002f165fad8/?form=MY01SV&OCID=MY01SV>. 보통의 홍수 시나리오(시간당 강수량 약 2 인치)와 심각한 홍수 시나리오(시간당 강수량 약 3.5 인치)가 표시되어 있음.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미국 출생 주민과 해외 출생 주민 모두 포함).

플러싱 지역의 총인구는 2020년 258,500 명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00년 이후로 1.9%의 순증가를 나타낸다. 퀸스의 동기 인구 성장률은 7.9%였으며 뉴욕시 전체의 인구 성장률은 9.9%였다.

총인구수 외 대부분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자료는 2019년까지의 자료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해당 자료에서는 2000년 이래로 상당한 이민자 수 증가와 함께 비이민자 수 감소가 함께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9년 이민자 수는 플러싱 주민 인구의 55.9%(134,100명)를 차지해 뉴욕시 내 55개 지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이민자 비율(그리고 가장 높은 이민자 수)을 기록하였다. 여기서 중국인 이민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66,800명), 그다음은 한국인 이민자(15,800명), 홍콩(5,400명), 대만(4,400명), 그리고 인도(3,200명, 그림 2 참조) 순이다.

지역 내 전체 인구(이민자 및 비이민자 주민 모두 포함)의 반 이상은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제도민이 차지하고 있으며(56.5%), 백인의 비율은 거의 4분의 1(24.3%), 히스패닉 또는 라틴계 비율은 15.6%, 그리고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비율은 고작 1.7%에 달했다.

미국 인구 조사국에 따르면 플러싱 지역 주민 중 중국인이라고 밝힌 사람은 79,600명(이민자 및 비이민자 주민 모두 포함)으로, 이는 뉴욕시 모든 지역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이다.

해당 지역은 스스로를 한국인이라고 밝힌 사람의 수가 도시 내에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17,100명) 이탈리아인이라고 밝힌 주민 수 역시 도시에서 다섯 번째로(16,600명) 많았다.

이 지역은 대부분의 지역보다 인구 연령대가 높다. 해당 지역 주민 중 55세 이상 주민의 비율은 2010년 이래로 7% 이상 증가한 35.9%로 뉴욕시 전체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를 자랑했으며, 퀸스와 뉴욕시 전체의 해당 비율은 30% 미만이었다. 해당 지역 인구의 중위 연령은

45.3세로 퀸스 중위 연령(39.7세)과 뉴욕시 전체의 중위 연령(37.2세)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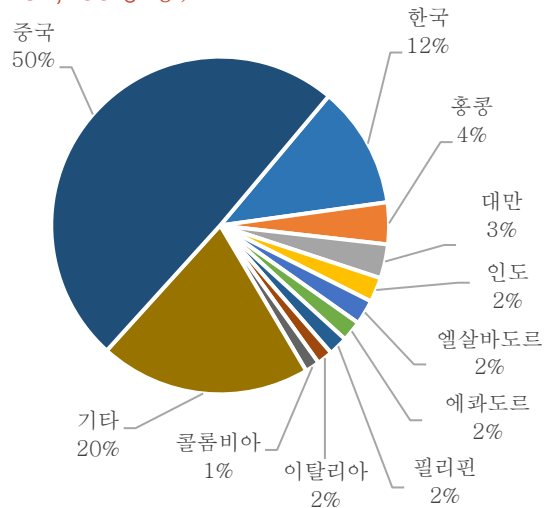
5세 이상 주민 중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비율은 2010년 60.6%였던 것에 반해 2019년에 49.2%로 하락하였고, 이는 뉴욕시 모든 지역을 통틀어 두 번째로 낮은 비율이다(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브라이언 비치/코니 아일랜드로 47%를 기록하였다). 이때 퀸스는 71.2%, 뉴욕시 전체의 비율은 77.8%이었다.

## 팬데믹 이전의 사업 및 일자리 성장세

### 사업 성장

2020년 이전, 플러싱 지역은 소규모 사업의 확장에 힘입어 눈에 띄게 강력한 사업 성장세를

**그림 2**  
2019년 플러싱 지역 내 출생지별 이민자 비율  
(총 134,100명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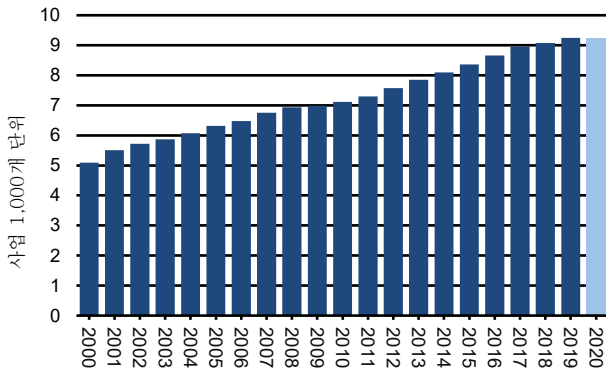


출처: 미국 인구 조사국, OSC 분석 자료

경험했던 지역이었다.

해당 지역의 사업 수는 2000 년 이후로 81.8%나 증가하였으며 4,160 개의 새로운 회사과 함께 2019 년 총 9,250 개의 회사 수를 기록하였다(그림 3 참조). 이는 퀸스 사업 성장률(44%)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며 뉴욕시 전체 사업 성장률(29.6%)의 거의 3 배에 가깝다. 해당 성장률의 4 분의 3(77.5%) 이상은 직원이 5 명 미만인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림 3**  
2000년 이래의 플러싱 지역 내 사업 성장률



출처: 뉴욕주 노동부, OSC 분석 자료

지역 사업은 아주 다양한 부문에 걸쳐 집중되어 있다. 2019 년 대부분의 회사 비율은 소매업과 사업 서비스 산업이 공평하게 차지하고 있었으나(각 1,160 개) 레저/관광/호텔, 개인 서비스, 건설, 금융 활동 및 의료로 이루어진 5 가지 다른 산업 부문이 각자 840 개에서 970 개 사이의 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대부분(2019 년 기준 87.5%)의 사업은 미국 중소기업청이 직원 10 명 미만의 사업으로 정의하는 초소형 기업이었으며 그중 거의 4 분의 3 은 직원이 5 명 미만이었다. 직원이 250 명 이상인 사업은 26 개였다. 이처럼 큰 회사 중 12 개는 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였고, 그중 5 개는 재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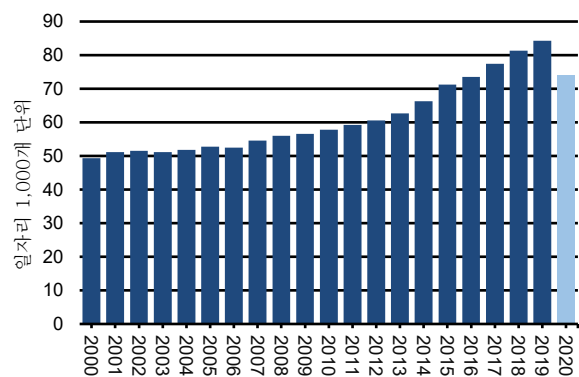
### 일자리 증가

팬데믹 이전 플러싱 지역은 지난 감사관실(OSC) [보고서](#)<sup>5</sup> 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2000 년 이래로 다양한 산업 부문에 걸쳐 눈에 띄게 강력한 사업

성장세를 경험한 지역으로 2010 년부터 2019 년까지 그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어 온 지역이었다.

해당 지역의 민간 부문 일자리는 2000 년부터 2019 년까지 놀랍게도 70.9%나 증가했으며 (그림 4 참조) 이는 퀸스 전체 성장률(32.4%)과 뉴욕시 전체 성장률(28.1%)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

**그림 4**  
2000년 이래 플러싱 지역 민간 부문 고용 성장률



출처: 뉴욕주 노동부, OSC 분석 자료

이 지역은 도시 전체의 일자리가 감소했던 대공황 중에도 계속해서 일자리를 확장해 왔으며, 2010 년 이래로는 그 성장 속도가 증가하였다. 해당 지역은 2010 년부터 2019 년 동안 26,400 개의 새로운 민간 부문 일자리를 추가해 총 84,300 개의 일자리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퀸스의 일자리 성장률(30.5%) 및 뉴욕시 전체의 일자리 성장률(28.7%)보다 훨씬 빠른 성장세(45.7%)이다. 해당 지역은 민간 부문 일자리와 더불어, 2019 년 기준 8,100 개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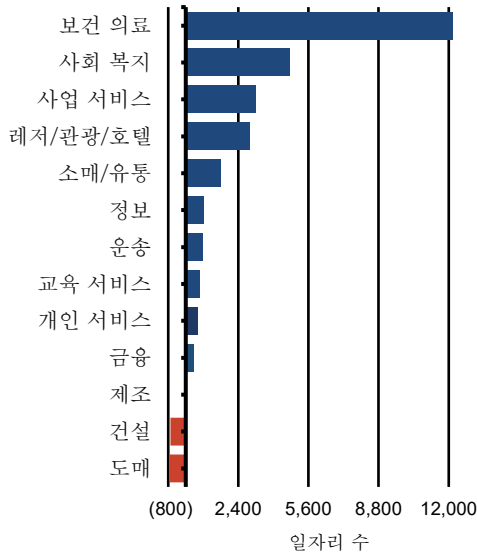
2010 에서 2019 년 사이 민간 부문의 일자리 성장은 거의 절반(46.1%)이 의료 관련 일자리 성장으로 성장세를 주도한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으나, 다른 산업 부문들 역시 일자리 성장에 크게 기여하면서 해당 지역, 지역 경제의 다양하고 활동적인 성격을 증명하였다(그림 5 참조).

<sup>5</sup> OSC, 플러싱 경제 현황, 퀸스, Report 10-2012, 2011 년 9 월,

<https://www.osc.state.ny.us/files/reports/osdc/pdf/report-10-2012.pdf>.

## 그림 5

2010-2019 산업 부문별 일자리 수 증가 또는 감소



출처: 뉴욕주 노동부, OSC 분석 자료

플러싱 지역의 임금 총액(평균 연봉과 일자리 수를 모두 반영한 수치)은 2010년 이래로 46% 증가하여 2019년에는 3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퀸스(79.1%) 및 뉴욕시 전체(53.7%)보다 낮은 비율이다. 그러나 해당 기간 동안 일자리가 증가한 것에 반해 2019년 민간 부문 평균 연봉(\$46,500)은 2010년보다 아주 미미하게 높은 수치에 불과했다.

해당 지역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하는 것은 의료 부문(일자리 26,100 개, 평균 연봉 \$50,200)이었다. 이는 모든 일자리의 약 3분의 1(31%)을 차지했다. 2010년 이래로 추가된 새로운 의료 관련 일자리 12,200 개 중 대부분(10,300 개)은 재택 의료 서비스 관련 일자리였으나 개인 병원 관련 일자리 또한 증가하였다(1,900 개).

해당 지역에서 일자리를 두 번째로 많이 창출한 산업은 10,100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소매업(지역 내 민간 부문 일자리 전체의 12%)으로 평균 연봉은 \$32,600 이었다. 2010년 이래로 소매업은 1,600 개의 일자리를 더 추가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백화점, 약국, 건축 자재 상점 및 가구 용품 상점 관련 일자리였다.

세 번째와 네 번째로 가장 큰 산업 부문은 레저/관광/호텔 산업, 그리고 사업 서비스 산업이었다(각자 모든 일자리의 약 9%를 차지함). 이 두 가지 산업은 합쳐서 새로운 일자리의 거의 4분의 1 을 차지하였다.

레저/관광/호텔 산업은 2,900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더해 총 7,500 개의 일자리와 평균 연봉 \$23,600 을 기록하였다. 이는 대부분이 레스토랑 관련 일자리로 모든 일자리의 약 80%를 기록하였고 직업 성장률에서도 그와 비슷한 지분을 차지했다. 플러싱 지역은 다양한 중국 지역과 한국 및 기타 국가의 음식을 서빙하는 아시안 음식 레스토랑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사업 서비스 산업은 3,200 개의 일자리를 추가하며 총 7,400 개의 일자리와 평균 연봉 \$50,700 를 기록하였다. 해당 일자리 증가는 일반 회계 서비스(가장 많은 일자리 창출)에서 법률, 컨설팅, 고용 및 여행 서비스에 이르는 아주 다양한 사업 서비스 분야에 분포되어 해당 지역이 맨해튼을 제외한 주요 사업 중심지 중 하나임을 증명하였다.

전체 일자리의 7%를 구성한 사회 복지 산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부문으로 새로운 일자리 5 개 중 1 개를 차지하는 산업이었다. 해당 산업은 2019년 4,750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더해 총 5,900 개의 일자리(2010년 대비 5 배 증가)와 평균 연봉 \$27,000 을 기록하였다. 해당 일자리 성장의 4분의 3 이상은 고작 2년 만에(2017년에서 2019년) 달성한 성과였으며 새로운 일자리의 대부분이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관련 일자리였다. (해당 지역 인구는 55세 이상 주민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 주민들의 노동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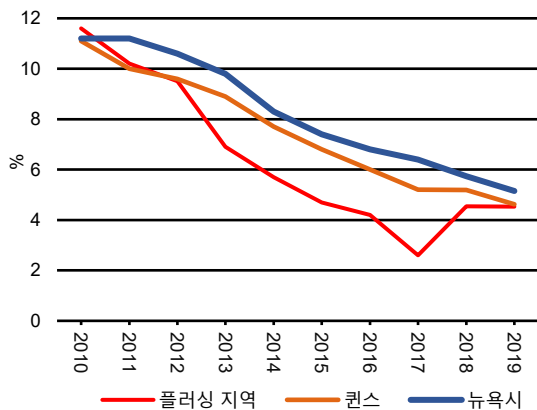
팬데믹 이전 2019년에 플러싱 지역 주민 중 근로자 수는 112,200 명이었으며 이는 단시간 근로자, 통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독립 계약자, 개인 사업자 및 자영업자를 모두 포함하는 수치였다.

해당 지역 내 직장이 있는 주민의 평균 연수입은 2019년 기준 \$51,800 였으며, 퀸스는 \$55,300 이었다. 통상 근로자(주 35 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평균 수입보다 2.5 배 이상이 높은 연평균 수입을 기록하였다(\$62,800 vs \$23,600). 통상 근로자는 전체 노동 인구의 70%를 차지했으며 이는 뉴욕시 전체의 비율과 비슷했다.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전 10년 동안 플러싱 지역의 실업률(미국 인구 조사국에 따른)은 2010년의 7.1%보다 떨어져 2019년에는 낮은 4.5%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역시 같은 시간 동안 실업률이 하락한 퀸스(4.6%) 및 뉴욕시 전체(5.2%) 비율 보다 낮았다(그림 6 참조). 플러싱 지역 청년 실업률 또한(퀸스 및 뉴욕시 전체와 동일하게) 반으로 줄어들어 13.9%를 기록한 상태였다.

**그림 6**  
2010-2019 실업률



출처: 미국 인구 조사국 미국 지역사회 설문조사, 1년 추정치. OSC 분석

플러싱 지역 주민의 종사 산업은 퀸스 및 뉴욕시 전체와 마찬가지로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산업보다 필수 및 대면 산업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었다.<sup>6</sup> 2019년 해당 지역 주민의 5대 종사 산업 중 4개는 필수 또는 대면 산업으로 분류된 산업이었으며 해당 비율은 지역 근로자의 거의 절반(47.5%)을 차지했다. 이는 의료 및 사회복지(14.2%), 레저/관광/호텔(12.5%), 네일숍, 미용실 및 자동차 정비 센터 등의 개인

서비스(11.7%), 그리고 소매업(9.1%)으로 이루어졌다. 이 5대 산업 중 원격 근무가 가능한 산업은 사업 서비스(지역 근로자 9.7%가 종사하는)뿐이었다(관리 및 지원 서비스의 하위 분야 제외).

지역 근로자 종사 산업의 34.5%는 또 다른 필수 또는 대면 산업이 차지하였다(건설, 제조, 도매, 운송 및 정부 산업 포함). 따라서 플러싱 지역 주민 근로자 중 필수 또는 대면 근무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비율은 82%를 차지하였다.

원격 근무가 가능한 산업인 정보 서비스, 금융 활동, 전문/기술/과학 서비스 및 회사 운영 관리 산업에 종사하는 플러싱 지역 근로자는 18%뿐이었다. 이 비율은 뉴욕시 전체에 걸쳐 브루클린에 위치한 이스트 뉴욕/스타렛 시티의 7.9%부터 맨해튼에 위치한 머리 힐/그래머시/스타이베센트 타운의 56.2%까지 다양한 범위를 자랑했다. 플러싱 지역의 해당 비율은 뉴욕시 내 55개 지역에서 중간을 차지하였으며 퀸스 평균(17.3%)에 가까웠다.

## 가구 소득 및 빈곤

플러싱 지역의 가구 중위 소득은 2019년 기준 \$54,900으로 2010년보다 고작 5.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8.7% 낮은 수치임). 퀸스 가구 전체의 중위소득은 \$73,700으로 2010년보다 38.9% 증가하였다. 노인 가구(세대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32,100을 기록했다.

플러싱 지역의 빈곤율은 2014년 19.8%로 정점을 찍은 후(대공황 이후) 2019년에는 16.4%로 하락하였다. 이는 퀸스(11.6%)보다 높으며 뉴욕시 전체와 같은 비율이다. 그럼에도 정부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구 '푸드 스탬프')에 가입된 가구 비율은 11.7%로 퀸스 전체 비율보다는 약간 낮고 뉴욕시 전체 비율보다는 6.8%나 낮았다. Medicaid 혜택을 받는 가구의 비율(28.8%)은 퀸스의 비율과 같았으며 뉴욕시 전체의 비율보다는 3.7% 낮았다.

<sup>6</sup> 필수, 대면 및 재택근무 산업의 개념에는 뉴욕시 정책연구 센터의 제임스 A. 패럿과 린다 모가 작성한 다음 두 가지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불평등의 새로운 변종: 코로나 19가

뉴욕시에 미친 경제적 영향', 2020년 4월 15일. 그리고 '3개월간 코로나 19를 경험한 뉴욕시의 경제: 영업 재개와 계속되는 저소득 노동자 불황', 2020년 6월.

## 코로나 19의 건강 영향

뉴욕시는 미국 내 다른 도시보다 팬데믹을 더 빨리 경험한 도시로, 2020년 4월 초의 7일 평균 확진자 수가 거의 5,500명으로 1차 급증하며 정점을 찍은 바 있다.<sup>7</sup> 그 후로는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여름을 맞아 약간 주춤하다가 다시 수가 증가하기 시작해 2021년 1월 초에는 예전보다도 높은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6,440명). 그리고 백신이 점점 널리 보급되면서 확진자 수 역시 크게 떨어져 6월에는 200명 미만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더 빠르게 확산되는 델타 등의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아직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주민 수가 높은 이유로 7일 평균 확진자 수는 7월 초 이래로 계속해서 심각한 상태로 증가해 왔다. 이 숫자는 9월 말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sup>8</sup>

도시 전체의 7일치 확진율은(검사 결과 감염이 확진된 사람들의 비율) 2021년 1월 초에 9.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퀸스에서조차 마찬가지였다(11.1%로 조금 더 높았음). 두 수치 모두 7월까지 꾸준히 하락하다가 9월까지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플러싱 지역 5개 동네 중 3개의 확진율은 퀸스 전체의 비율과 계속 비슷한 수치를 유지했다.<sup>9</sup>

플러싱 지역 내 우편번호 5개 지역/동네는 팬데믹의 영향에서 각자 아주 큰 차이를 보였다.<sup>10</sup> 2020년 11월 이래로 플러싱/머리 힐/퀸스보로 힐 및 칼리지 포인트 지역은 플러싱 지역 내 다른 동네보다, 그리고 퀸스 전체보다 훨씬 높은 7일치 확진율을 기록해 왔다(다음 페이지의 그림 7 참조). 플러싱/머리 힐/퀸스보로 힐 지역은 2021년 2월 20일부터 2021년 5월 15일까지 13주 중 11주 동안 뉴욕 우편번호 177개를 통틀어서 확진자 수가 제일 높은 3대 우편번호 중 하나에 포함되었다(2월에는 15.4%로 정점을 찍음).

2021년 10월 6일 기준 플러싱 지역의 누적 확진율은 주민 100,000명당 12,917명이었다(2페이지 다음의 그림 8 참조). 그러나 센트럴 플러싱(플러싱/머리 힐 및 플러싱/머리 힐/퀸스보로 힐)을 포함하는 두 가지 우편번호/동네는 해당 지역 내 다른 3개 동네보다 인구수가 훨씬 많다(각각 53,919명, 그리고 78,853명). 이 두 동네는 다른 동네보다 확진자 수가 훨씬 많았으나, 누적 확진율은 칼리지 포인트가 가장 높았다. 그럼에도 칼리지 포인트, 플러싱/머리 힐/퀸스보로 힐 및 화이트스톤의 누적 비율은 여전히 퀸스 및 뉴욕시 전체 비율보다 높았다.

<sup>7</sup> 보건 관련 자료는 모두 따로 명시하지 않은 한 뉴욕시 보건 정신 위생부의 자료임. 확진자 수는 7일 평균 확인 및 예측된 코로나 19 확진자 수를 표시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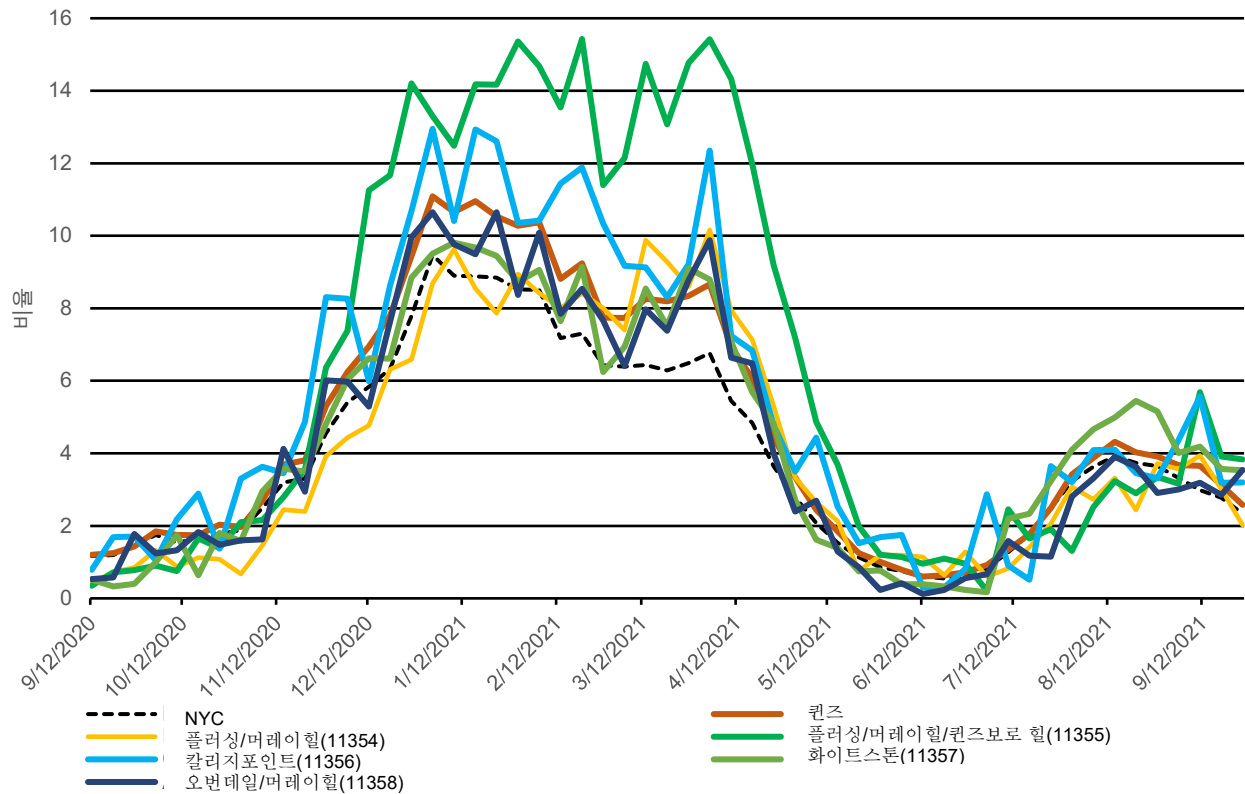
<sup>8</sup> 해당 자료는 요양원 및 교정 시설 등 집단 환경에 거주하는 이들을 포함하므로 우편번호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sup>9</sup> 2020년 8월 8일 이전에는 이 시리즈에 대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았음.

<sup>10</sup> 모든 코로나 19 관련 보건 자료에서 플러싱 지역이란 다음 5가지 우편번호 지역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해당 경계선은 미국 인구 조사국 기준 지역 정의의 경계선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1354(플러싱/머리 힐), 11355(플러싱/머리/퀸스보로 힐), 11356(칼리지 포인트), 11357(화이트스톤), 그리고 11358(어번데일/머리 힐).

## 그림 7

플러싱(Flushing) 지역, 퀸즈(Queens), NYC 내 COVID19 확진율(2020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출처: NYC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OSC analysis

플러싱/머리 힐 지역은 팬데믹 초기에 일반적으로 지역 내 다른 동네보다, 그리고 자치구와 도시 전체보다 높은 입원율을 기록하였으며, 도시 내 모든 우편번호를 통틀어 입원율이 가장 높은 10 군데 중 하나에 포함되기도 했다.<sup>11</sup> 2021년 초기(1월~4월)에 플러싱/머리 힐 지역의 입원율은 지역 내에서 두 번째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플러싱/머리 힐/퀸즈보로 힐보다는 낮았지만 퀸즈 전체 비율보다는 높았고 여전히 일반적으로 도시 내 모든 우편번호를 통틀어 입원율이 가장 높은 10 군데에 포함되는 수치를 유지했다. 하지만 해당 동네들의 입원율은 그 이후로 나머지 플러싱 지역, 자치구 및 도시 전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저히 감소해 왔다(델타 감염률 급증 시기를 제외하고).

플러싱 지역의 사망률은 주민 100,000 명당 512 명이었던 와중에 플러싱/머리 힐 지역과 플러싱/머리 힐/퀸즈보로 힐 지역은 플러싱 내 다른 지역과 퀸즈, 그리고 뉴욕시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사망자 수와 누적 사망률을 기록하였다(그림 8 참조). 칼리지 포인트는 확진율이 높았음에도 지역 내 사망률이 두 번째로 낮았으며 이는 뉴욕시 전체와 퀸즈의 사망률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였다.

<sup>11</sup>우편번호 별 누적 입원율은 도시 통계 자료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보이나 2020년 3월 이래로는 월별 자료가 공개되어 왔다.



## 그림 8

### 플러싱 지역의 코로나 19 확진자 및 사망자 누적 현황, 2021년 10월 6일 기준

우편번호 지역	확진	사망	확진율	사망률
플러싱/머리 힐 (11354)	6,557	461	12,161	855
플러싱/머리 힐/퀸스보로 힐 (11355)	10,679	391	13,543	496
칼리지 포인트 (11356)	3,474	65	15,227	285
화이트스톤 (11357)	5,191	169	13,408	437
어번데일/머리 힐 (11358)	3,849	93	10,684	258
플러싱 지역	29,750	1,179	12,917	512
퀸스	300,972	10,168	13,354	448
뉴욕시	1,051,361	33,977	12,611	408

참고: 확진율과 사망률은 주민 100,000 명당 확인 및 예측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의 누적 숫자임.

출처: 뉴욕시 보건 정신 위생부, OSC 분석 자료

2021년 10월 6일 기준 플러싱/머리 힐 지역의 누적 사망률은 뉴욕 우편번호 177 개를 통틀어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해당 비율은 두 번의 감염률 피크 동안, 그리고 특히 팬데믹 초기에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해당 동네의 누적 사망률은 해당 피크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나 월별 사망률은 도시 전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소해 팬데믹이 지역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백신 접종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백신 접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2021년 10월 17일 기준 뉴욕시 인구의 65.6%는 완전히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였으며 72.2%가 적어도 1차 접종을 마친 상태였다. 퀸스 주민 중 완전히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 비율(72.4%)과 적어도 1차 접종을 마친 주민 비율(78.5%)은 맨해튼 바로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뉴욕시 전체보다도 높은 비율을 자랑했다.

플러싱 지역의 백신 접종률은 아주 높은 수치를 유지해 왔다. 플러싱 지역 전체를 통틀어 완전히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 비율은 89.4%, 그리고 적어도 1차 접종을 마친 주민 비율은 94.8%나 된다(그림 9 참조).

이때 지역 내 우편번호별로 백신 접종을 마친 인구의 비율이 퀸스 및 뉴욕시 전체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 내 우편번호 5 개에 거주하는 주민 중 완전히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의 비율은 74.4%에서 100.1%까지에 도달하였으며 적어도 1차 접종을 마친 주민 비율은 78.8%에서 105.7%를 자랑했다(100%를 초과하는 수치는 해당 지역의 2019년 인구 추정치보다 접종 횟수가 많은 것을 나타냄).

플러싱/머리 힐/퀸스보로 힐 지역은 뉴욕 우편번호 177 개를 통틀어서 일곱 번째로 높은 백신 완전 접종률을, 그리고 최소 1차 접종 완료에서는 여덟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4개 동네 역시 모두 상위 3분의 1에 포함되었다.

## 그림 9

### 2021년 10월 17일 기준 플러싱 지역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 현황

우편번호	최소 1회 접종 완료	완전 접종 완료
플러싱/머리 힐 (11354)	95.2%	89.6%
플러싱/머리 힐/퀸스보로 힐 (11355)	105.7%	100.1%
칼리지 포인트 (11356)	92.5%	85.3%
화이트스톤 (11357)	78.8%	74.4%
어번데일/머리 힐 (11358)	89.3%	84.6%
플러싱 지역	94.8%	89.4%
퀸스	78.5%	72.4%
뉴욕시	72.2%	65.6%

참고: 모든 연령대를 포함한 전체 인구 비율을 표시한 것으로, 100%를 초과하는 수치는 해당 지역의 2019년 인구 추정치보다 접종 횟수가 많은 것을 나타냄.  
출처: 뉴욕시 보건 정신 위생부, OSC 분석 자료

뉴욕시 전체를 통틀어 계산한 모든 인구 및 민족의 백신 접종률을 기록한 자료는 사용이 가능하나 우편번호별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시아계 미국인/태평양 제도민은 도시 전체를 통틀어 다른 인구통계 집단보다 훨씬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록하였다.

## 팬데믹의 경제적인 영향

### 고용 및 사업

뉴욕시의 경제는 2020년 3월 팬데믹의 시작과 함께 빠르게 제한되었으며 4월에 다다르자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전년 대비 873,000 개나 줄어든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다(총 일자리 수 약 3,030,000 개). 해당 '셧다운' 이후로는 일부 점진적인 영업 재개가 시도되었으며 2020년 12월부로는 도시 내 전체 일자리 수가 3,440,000 개로 늘어나며 2019년 대비 573,000 개의 실제 일자리 감소를 기록하였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비즈니스 산업, 그중에서도 대면 근무가 필요하며 원격 근무로 전환할 수 없는 비필수 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으며 많은 직원을 정리 해고해야 했다. 의료 산업 등의 필수 산업은 원격 근무로 전환이 가능했던 덕에 비즈니스 서비스, 금융 활동 및 정보 산업과 함께 훨씬 낮은 일자리 감소를 경험하였다.

2020년 2분기(4월~6월)에 다다르자 플러싱 지역의 민간 부문 일자리 수는 거의 4분의 1 이나 감소한 상태였다(1년 전 동기보다 23.4%나 하락함). 이는 5개 자치구 중 일자리 감소율이 가장 높았던 퀸스(25.2%)의 비율에 가까운 수치였다. 플러싱 지역 내 일자리 수는 해당 분기에 평균 64,490 개로 감소하여 19,660 개의 일자리 감소를 경험하였다. 해당 숫자는 점차 증가해 다음 분기(2020년 7월~9월)에는 고작 14.0%만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20년 4분기의 민간 부문 일자리는 여전히 2019년 동기 대비 10.5%나 낮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해당 지역의 일자리는 도시 내 다른 동네보다, 그리고 퀸스 및 뉴욕시 전체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해 왔다. 2021년 1분기에 다다라 해당 지역은 1년 전보다 일자리가 8.4% 감소한 상태였고, 이는 뉴욕시 내 55개 지역의 절반보다 약간 높은 일자리 회복률을 기록하였다. 이때 퀸스의 일자리는 12.5%, 뉴욕시 전체 일자리는 14.1% 감소한 상태였다.

플러싱 지역 내 사업 대부분은 비필수 대면 산업이나 의료/사회 복지 등의 필수 산업에 포함되는 사업이었다. 2020년 마지막 3분기(4월~12월) 평균 일자리 수를 살펴보면 팬데믹이 지역 내 산업에 미친 영향이 눈에 띄게 드러난다(그림 10 참조).

## 그림 10

플러싱 지역의 일자리 부문별 팬데믹 관련 고용 영향  
2020년 2분기~4분기 vs. 2019년

부문	2019년 2분기~4분기 평균 일자리 수	2020년 2분기~4분기 평균 일자리 수	차이	비율 변화
레저/관광/호텔	7,571	3,940	-3,631	-48.0%
개인 서비스	3,869	2,541	-1,328	-34.3%
교육 서비스	1,529	1,060	-469	-30.6%
도매	3,092	2,343	-749	-24.2%
제조	2,497	1,976	-521	-20.9%
소매/유통	10,160	8,324	-1,836	-18.1%
건설	6,141	5,239	-902	-14.7%
금융	4,335	3,784	-551	-12.7%
사업 서비스	7,489	6,674	-815	-10.9%
운송	2,504	2,246	-259	-10.3%
보건 의료	26,391	24,575	-1,816	-6.9%
정보	2,715	2,530	-185	-6.8%
사회 복지	6,078	5,850	-227	-3.7%
기타 모든 산업	693	455	-238	-34.3%
<b>플러싱 지역</b>	<b>85,064</b>	<b>71,537</b>	<b>13,527</b>	<b>-15.9%</b>
<b>퀸스</b>	<b>598,658</b>	<b>489,446</b>	<b>109,212</b>	<b>-18.2%</b>
<b>뉴욕시</b>	<b>3,937,767</b>	<b>3,259,469</b>	<b>678,298</b>	<b>-17.2%</b>

출처: 뉴욕주 노동부, OSC 분석 자료

실내 외식이 줄어들고 호텔 예약이 극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대부분의 예술 및 스포츠 공연장/경기장이 문을 닫은 상태에서 레저/관광/호텔 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높은 일자리 감소율(그리고 가장 높은 일자리 수 감소)을 경험하였다(그중 4분의 3은 레스토랑 및 바 일자리였다).

그 뒤로 가장 높은 일자리 감소율을 보인 것은 개인 서비스(예: 미용실 및 네일숍)와 같은 비필수 대면 산업, 개인 교육 서비스, 도매, 제조, 소매(소매업은 두 번째로 일자리 감소율이 높았음) 및 건설업이었으며 모두 14.7%에서 34.3% 사이의 일자리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식품점과 약국을 제외하고 소매업 내 하위 부문에 포함되는 모든 사업은 비필수 대면 하위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의료 산업과 금융, 그리고 사업 및 정보 서비스 산업은 뉴욕시 전체와 마찬가지로 훨씬 낮은 일자리 감소율(12.7% 미만)을 기록했다.

2020년의 마지막 3분기 평균 집합 자료를 보면 플러싱 지역의 실제 사업 감소 비율이 1%(71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표시되어 있으나 사업 규모별 숫자를 보면 상당한 구조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플러싱 지역 내 직원이 5명 이상인 회사의 수는 24%나 감소하였으며(600개 이상 감소), 직원이 5명 미만인 회사의 수는 8% 증가한 것이 보인다(거의 540개). 또 도시 전체를 살펴보면 비슷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직원이 5명 이상인 사업 수의 감소율은 그보다 낮았으며(16%) 직원이 5명 미만인 사업 수의 증가율은 9%였다.

해당 논의는 팬데믹이 지역 내 일자리와 사업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춰 왔다. 그러나 주민들(지역 내 직장 또는 뉴욕시 내 직장)

함께)도 팬데믹으로 이와 비슷한 영향을 받았다. 플러싱 지역 주민 근로자 중 80% 이상은 필수 또는 대면 산업에 종사하는 상태였다. 따라서 필수 산업에서 집을 떠나 코로나 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남들보다 높거나, 레스토랑, 바, 호텔, 미용실 및 소매 상점 등 비필수 대면 직종(식료품점과 약국 외의)에서 발생한 대량 정리 해고로 실직할 위험이 더 높았던 것이다.

## 통근

다운타운 플러싱이 전철역과 LIRR 정차역이 분포되어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중심지임에도 지역 내 지하철역은 메인 스트리트의 7호선 중점역뿐이다. 미국 인구 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직장에 통근하는 지역 근로자 중 4분의 1 미만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2</sup> 주민 근로자 중 절반이 약간 안 되는 비율이 자동차, 트럭, 또는 밴을 이용해 통근하고 있었으며 12%는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했다.

플러싱 지역 주민의 평균 통근 시간은 2019년 기준 41.7분이었다. 이는 뉴욕시 전지역을 통틀어 17번째로 낮은 평균 수치였으며 퀸스 평균(44.2분)보다 낮고 도시 전체의 수치와 같았다. 해당 지역은 퀸스 내 14개 지역 중에서 걸어서 통근하는 주민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11.3%)이었다.

2021년 9월 기준 플러싱 내 지하철 이용 인구 수준은 퀸스 내 13개 동네 중에서는 5위, 도시 내 51개 지역 중에서는 12위를 차지했다.<sup>13</sup> 2020년 4월 팬데믹으로 경제 활동 제한이 시작될 즈음 해당 지역의 지하철 이용 인구 비율은 1년 전의 8.5%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2021년 3월에는 2019년 대비 지하철 이용률이 40% 증가했으며 2021년 9월에는 5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하였다.<sup>14</sup>

## 주택

플러싱 지역은 뉴욕시 전체 비율보다 자가 소유율이 높은 지역이며 주택 가격 역시 튼튼한 성장세를 기록해 왔다. 해당 지역의 임대료는 뉴욕시 전체보다 느리게 증가해 왔으나, 주택 확보력은 임차 가구와 자가 소유 가구 모두에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 임대 주택

2019년 플러싱 지역의 주택 수는 90,100개로 이중 반 이상(56%)이 임대 주택이었다. 해당 지역의 임대료 중위 가격은 \$1,560이며, 퀸스는 \$1,640, 뉴욕시 전체는 \$1,480이다. 해당 지역의 임대료는 2010년 이래로 17.5% 증가했으며 이는 퀸스 및 뉴욕시 전체 임대료 증가율의 거의 절반 수준이다(다음 페이지 그림 11 참조).

Zillow Research는 해당 지역 전체의 임대료 시장을 추적하지 않아 정확한 자료는 얻기 힘들으나, 추정치에 따르면 플러싱/머리 힐 지역 내 임대료 시세는 지난 몇 년간 보통의 성장세를 보인 후 2020년 전반에 걸쳐 2% 하락한 뒤, 2021년 전반기에는 1년 전 동기보다 7.3% 하락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2021년 평균 임대료는 \$2,095였다.

미국 인구 조사국의 자료에 따르면 플러싱 내 임대 주택 거주 가정의 거의 3분의 2(61.2%)가 2019년 임대료 지불 관련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이는 도시 전체를 통틀어 일곱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해당 가구는 임대료가 소득의 30% 이상(집값 부담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기준치)을 차지하는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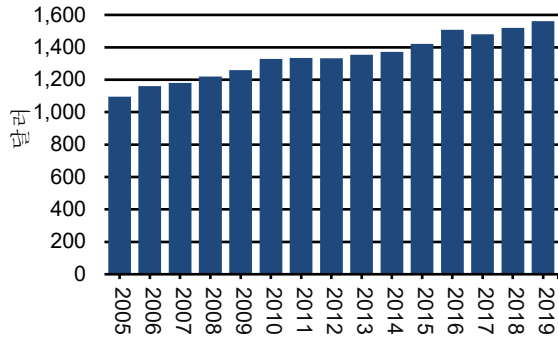
<sup>12</sup>미국 인구 조사국, 미국 지역사회 설문조사, 1년 추정치.

<sup>13</sup>스태튼 아일랜드나 퀸스의 베이사이드, 더글라스톤, 그리고 리틀넥 지역에는 지하철역이 없다.

<sup>14</sup> OSC, '코로나 19가 뉴욕시 지하철 이용객에 미친 영향', <https://www.osc.state.ny.us/reports/osdc/impact-covid-19-pandemic-subway-ridership-new-york-city> 참고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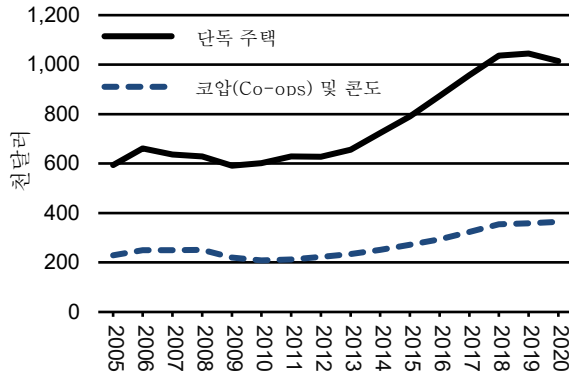
그림 11

광역 플러싱 지역 내 임대료 중위값



출처: U.S. Census Bureau; OSC analysis

플러싱 지역 주택 가치



출처: Zillow Home Value Index; OSC analysis

이 중 5분의 2 이상(40.7%)이 심각한 임대료 지불 관련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며(뉴욕시 전체의 해당 비율은 26.2%) 이는 뉴욕시 내 55개 지역을 통틀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해당 가구는 임대료가 가구 소득의 최소 반을 차지하는 상태였다.

팬데믹과 함께 일자리와 수익 감소가 발생하자 도시 주민의 임대료 지불 능력이 영향을 받으면서 만성적인 주택 확보력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다. 곧 많은 이들이 주거지에서 퇴거 처리될 수 있다는 걱정은 2022년 1월 15일까지 대부분의 퇴거를 금지한다는 뉴욕 주의 퇴거 중단 명령 연장과 함께 완화될 수 있었다.

현재 뉴욕주의 2021-22년 회계 연도 예산은 저소득 임차인(소득이 해당 지역의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들)과 그 집주인을 돕기 위해 설립된 27억 달러 상당의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ERAP)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6월 1일부터 신청서를 받기 시작했음에도 첫 달에는 임대료 지원금이 배분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배분 속도를 더 높일 수 있었다. 초기에는 프로그램 웹사이트와 번역 자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OSC의 해당 프로그램 관련 [최신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sup>15</sup>

프로그램 시행을 담당할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 담당국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 승인된 금액은 18억 달러이나 뉴욕주 전체에 분배된 금액은 6억 6천 7백만 달러에 불과하고 퀸스 내 부동산으로 간 금액은 1억 2천 2백만 달러뿐이라고 한다. 8월 말 기준 뉴욕 주 전체를 통틀어 제출된 신청서의 수는 228,100개였으며 그 중 2,675개는 플러싱 지역 부동산을 위한 신청서였다.

자가 점유율

자가 점유 주택은 플러싱 지역 전체 주택의 44.1%를 차지한다(퀸스의 비율과 같으나 뉴욕시 전체 비율인 31.9%보다 훨씬 높다). 미국 인구 조사국에 따르면 주택 중위 가격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31.8% 증가해 \$718,000에 도달했다.

Zillow Research에 따르면 플러싱 커뮤니티의 일반적인 단독 주택 가격은 2020년 팬데믹과 함께 약간의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2010년 이후 급상승하며 \$1,010,000을 기록하였다(그림 11 참조).<sup>16</sup> 협동조합 아파트와 콘도의 일반적인 가격은 비슷한 패턴을 따라가며 2020년 \$364,000을 기록하였다.

<sup>15</sup> OSC, *뉴욕주 임대료 구호 지원: 뉴욕시 집중 자료*, Report 7-2022, 2021년 8월, <https://www.osc.state.ny.us/reports/osdc/new-york-state-rent-relief-funding-spotlight-new-york-city>.

<sup>16</sup> Zillow가 사용하는 지역 이름은 이 보고서에서 사용한 지역 이름과 다를 수 있음.

화이트스톤, 칼리지 포인트 및 머리 힐의 일반적인 평균 단독 주택 가격은 각각 \$1,010,000, \$799,000, 그리고 \$574,000 이었다. 이 세 커뮤니티 내 협동조합 아파트 및 콘도의 일반적인 평균 가격은 각각 \$347,000, \$597,000, 그리고 \$326,000 이었다.

이때 주택 소유자의 34.7%가 집값 부담을 호소하였으며, 이는 자치구 전체 비율과 거의 동일하나 뉴욕시 전체 비율(32.2%)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또 주택 소유자 중 거의 5분의 1은 집값이 심각하게 부담된다고 밝혔으며 이는 퀸스 및 뉴욕시 전체의 비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 교육 및 광대역 인터넷

### 교육

플러싱 지역에는 Pre-K 부터 12 학년 학생 23,000 명 이상이 재학 중인 30 개의 공립학교가 있다. 해당 지역의 학교는 뉴욕시의 다른 부분에서 보다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0-21 학년도 도시 전체의 Pre-K 부터 12 학년까지의 등록률은 5% 하락하였으나, 뉴욕주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플러싱 지역의 공립학교 등록률은 3%밖에 하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뉴욕시 전체의 동향과 비슷하게 해당 비율 감소는 대부분 저학년에 집중되어 있다(플러싱 지역 등록률 감소의 약 3분의 2 가 Pre-K 부터 3 학년까지에 집중되어 있음). 뉴욕시 시장의 가장 최근 메시지에 포함된 도시 전망 자료에 의하면 뉴욕시 전체를 통틀어 2020-21 학년도에 공립학교 재학을 중단한 학생들 중에서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는 2021년 9월에 다시 학교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들은 반 정도뿐이라고 한다.

팬데믹은 또 기존의 학생 성취도 추적 방법(표준화 검사 등)에 영향을 미쳤으며 모든 학교는 2020-

21 학년도에 강제로 원격 수업과 혼합 수업 방식을 채택해야만 했다.<sup>17</sup> 2020년 봄 원격 수업 채택 시에 90.5%를 기록했던 플러싱 지역의 출석률은 쭉 그 기세를 유지하며 2021년에는 뉴욕시 전체의 수치보다 높은 비율을 자랑했다. 2021년 봄 플러싱 지역 학교의 평균 출석률은 원격 수업의 경우 평균 91.4%, 대면 수업의 경우 90.6%였다. 뉴욕시 전체의 출석률은 2020년 봄에는 85.2%를 기록하였고, 2021년 봄에는 원격 수업의 경우 85.9%, 그리고 대면 수업의 경우 87.5%를 기록하였다.

### 광대역 인터넷 사용

광대역 인터넷 사용에 대한 지역별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연방 통신 위원회(FCC)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퀸스에서 25/3 mbps 속도의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3개 이상이라고 한다.<sup>18</sup> FCC의 2019년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실시 관련 보고서를 보면 퀸스 주민의 100%가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가 시행되는 곳에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9</sup>

그러나 서비스 이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림 12를 보면 2019년 플러싱 지역에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즉 광대역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주민의 비율은 퀸스 및 뉴욕시 전체의 비율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광대역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주민은 자치구 및 뉴욕시 전체의 비율과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주민 집단과 고등학교를 마치지 않은 학력 집단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 비율은 저소득 가구 수준에서 더 높은 숫자를 기록하였다.

<sup>17</sup> OSC, 뉴욕시 교육부의 코로나 19 팬데믹 관련 대응 내용, Report 8-2022, 2021년 9월, <https://www.osc.state.ny.us/files/reports/osdc/pdf/report-8-2022.pdf> 참고 바람.

<sup>18</sup> FCC가 규정한 광대역 인터넷의 최소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는 각각 초당 25 메가비트, 그리고 초당 3 메가비트이다.

<sup>19</sup> OSC, 사용 가능성, 사용 및 가격 부담: 뉴욕주 광대역 인터넷 사용 관련 문제 이해하기, 2021년 9월, <https://www.osc.state.ny.us/files/reports/pdf/broadband-availability.pdf> 참고 바람.

## 그림 12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 및 가구 지분, 2019 년 자료

인구통계학적 지표	플러싱 지역	퀸스	뉴욕시
<b>주민 지분</b>			
모든 주민	16.8	10.8	12.2
<b>연령 집단</b>			
18 세 미만	10.1	7.3	10.5
18 세~64 세	12.7	8.3	8.9
65 세 이상	34.5	24.9	28.7
<b>교육 이수</b>			
고등학교 미만	34.4	20.4	27.0
고등학교/일부 대학	18.3	13.6	15.0
교육/준학사	8.6	5.8	5.2
학사 이상	8.6	5.8	5.2
<b>가구 지분</b>			
모든 가구	44.1	30.5	28.7
<b>가구 소득</b>			
\$20,000 미만	47.5	37.3	37.5
\$20,000~\$74,999	24.0	16.8	16.8
\$75,000 이상	10.1	5.7	4.9

출처: 미국 인구 조사국 미국 지역사회 설문조사, 1-년 추정치. OSC 분석 자료

## 범죄 추세

플러싱 지역이 포함된 제 109 선거구 내의 주요 범죄 지수<sup>20</sup>는 2010 년과 2019 년 사이에 대체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지난 10 년간의 수치보다 50%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제 109 선거구 내 지역은 역사적으로 뉴욕주 전체 및 자치구 전체보다 안전하고 범죄율이 낮은 상태를 유지해 온 바 있다. 해당 지역은 2019 년의 추세를 이어받아 주민 100,000 명당 범죄 건수 801 회를 기록하였다(자치구는 845 회, 도시 전체를 통틀면 1,147 회).

팬데믹을 처음 맞이한 해였던 2020 년 플러싱 지역의 범죄율은 절도 건수와 차량 절도 건수(GLA)가 약간 많아지며 살짝 상승하였으나

<sup>20</sup> 주요 범죄 지수는 강력 범죄(살인, 강간, 강도, 중죄) 및 재산 범죄(절도, 중절도 및 차량 절도)를 포함함.

<sup>21</sup> OSC, *뉴욕시 임금 보호 프로그램 그 다음 단계는? Report 10-2021*, 2021 년 2 월, <https://www.osc.state.ny.us/files/reports/osdc/pdf/report-10-2021.pdf>.

강력 범죄율은 9.7% 감소하였다. 반면 2021 년 10 월 초까지의 해당 지역 내 전년 동기 대비 누적 범죄율은 1 년 전보다 17.5%나 하락하였으나 차량 절도는 35% 증가하였다. 뉴욕시 전체의 전년 동기 대비 범죄율 역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퀸스와 뉴욕시 전체가 총격 사건 관련 문제를 경험하는 와중에도 플러싱 지역의 발생률은 계속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혐오 범죄가 뉴욕시 전체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그 수치는 2021 년 9 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03%나 증가하였고, 그중에서도 아시아인 혐오 범죄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플러싱 지역의 혐오 범죄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나, 2020 년 첫 9 개월 동안은 1 건 뿐이었던 것에 비해 2021 년 동기에는 7 건으로 증가하였다.

## 팬데믹 관련 정부 구호 프로그램

플러싱 지역 사업과 주민들은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연방, 주 및 시 정부 구제책을 활용할 수 있었으며 2020 년 3 월 입법된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호 및 경제 안정법(CARES 법)의 일부로 임금 보호 프로그램(PPP) 설립, 경제적 피해 관련 재해 대출(EIDL) 프로그램의 확장, 그리고 주 실업 급여 혜택 강화를 통한 정부 구호가 제공되었다.

PPP의 주요 설계 목적은 팬데믹으로 영업을 제한된 동안에도 직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추가 정보는 OSC의 PPP 관련 [최신 보고서](#) 참고 바람.<sup>21</sup>) 또 EIDL 프로그램의 확장에 따라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소규모 사업과 비영리 단체 역시 저금리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sup>22</sup> 대출 신청자는 또 최대 \$10,000의 선불금을 받을 수 있었으며 선불금의 상환은 면제되었다.

2020 CARES 법의 통과 이후에도 추가 입법 및 정책 방안이 마련되어 프로그램을 간소화하거나,

<sup>22</sup> PPP는 새로 생긴 프로그램이지만 EIDL 프로그램은 팬데믹 이전에도 존재하던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업이 주로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일시적 수입 감소를 충당할 수 있도록 저금리 장기 대출을 제공한다. CARES 법은 코로나 19 관련 손실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EIDL 대출 및 선불금을 제공하였다.

확장하거나, 보충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고 레스토랑 재부양 기금(RRF)처럼 새로운 프로그램이 신설되기도 했다. RRF는 팬데믹 영업 제한으로 인한 레스토랑 산업의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림 13에서 볼 수 있듯이 플러싱 지역의 소규모 사업들은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코로나 19 관련 구호 지원을 받았다. 프로그램 개시 이래로 퀸스에 승인된 RRF 보조금 전체의 29.5%는 플러싱 지역 사업에 제공되었으며 자치구에 승인된 PPP 대출금, EIDL 및 EIDL 선불금의 12.4%에서 14.8% 사이가 해당 지역 사업에 제공되었다. 2021년 해당 지역에 승인된 PPP 대출의 평균 금액은 2020년 대출 금액의 평균 금액보다 낮았다. 2021년 승인된 모든 PPP 대출 중 거의 모든 대출이 직원 20명 미만의 사업에 제공되었으며 거의 절반이 독립 계약자, 개인 사업자 및 자영업자에게 제공되었다. 해당 지표는 모두 해당 지역이 성공적으로 구호 기금을 이용하고 해당 지역에 공평하게 PPP 대출금이 분배될 수 있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 정부 임금 보호 프로그램

2021년 6월 기준, 프로그램 개시 이래로 퀸스에 승인된 PPP 지원 금액 전체의 12.4%는 플러싱 지역 사업에 제공되었다. 현재까지 해당 대출의 3분의 1이 상환 감면/면제된 상태이다.<sup>23</sup>

### 그림 13

#### 플러싱 지역의 소규모 사업이 이용한 코로나 19 관련 정부 구호 자원

프로그램	지역 대출 또는 보조금 (단위: 백만)	보조금 및 대출 감면/면제* 비율	퀸스 보조금 및 대출금 달러 금액	시 보조금 및 대출금 달러 금액
<b>2020년 3월~2021년 6월</b>				
임금 보호 프로그램	\$635.8	33.6	12.4	2.0
레스토랑 재부양 기금	\$96.6	100.0	29.5	3.5
<b>2020년 3월~2020년 12월</b>				
경제적 피해 관련 재해 대출	\$289.7	해당 없음	13.0	2.9
경제적 피해 관련 재해 대출 선불금 (보조금)	\$25.6	100.0	14.8	3.5

\*해당 열의 수치는 상환이 감면/면제되었거나 (대출) 상환이 아예 필요하지 않은 (보조금) 금액의 비율을 표시한 것임. 3.2% 이하의 금리와 최대 30년의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EIDL에는 감면/면제가 제공되지 않음.

출처: 미국 중소기업청, OSC 분석 자료

<sup>23</sup>PPP가 2020년 3월 이래로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소규모 사업에 제공한 대출금은 총 \$960,250,000,000이다.

### 대출 및 기업 규모

2020년 3월-2021년 6월 기준 플러싱 지역 사업이 받은 PPP 대출의 평균 금액은 \$52,764로 이는 퀸스 평균과 거의 같다. 뉴욕시 전체와 마찬가지로 2021년 제공된 대출 금액은 2020년 제공된 금액보다 낮았으며 2021년 승인된 대출 평균액(\$37,518)은 2020년 승인된 대출 평균액(\$74,019)의 약 절반 정도 금액을 기록했다. 플러싱 지역 내에서 대출을 받은 모든 사업의 96.6%는 직원이 20명 미만인 사업들이었다(이는 퀸스와 같은 비율임). 지역 내 모든 대출(제공된 총대출 금액의 15.4%)의 거의 3분의 2는 \$20,000 미만이었다.

### 대출을 받은 산업 부문

퀸스 지역을 통틀어 승인된 모든 대출 금액의 60%, 그리고 플러싱 지역에 승인된 모든 대출 금액의 절반이 약간 넘는 비율이 네 가지 산업에 분포되어 있었다(그림 14 참조). 플러싱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대출금을 받은 것은 의료 및 사회 복지 산업 내 사업(주로 의사, 치과의사 및 재택 의료 서비스 제공 업체)이었으며, 해당 지역과 자치구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의 대출금을 받은 것은 건설업이었다. 플러싱과 퀸스 모두 대출을 가장 많이 받은 나머지 4대 산업은 숙박 및 요식업(주로 레스토랑과 바), 그리고 운송업(주로 택시 및 리무진 서비스)이 차지했다.

2021년에도 신규 대출자와 2020년에 대출을 받은 이들 모두에게 대출이 제공된다.



## 그림 14

플러싱 및 퀸스 산업 부문별 PPP 대출 현황,  
2021년 1월~6월 자료

부문	플러싱	퀸스
보건 의료 및 사회 복지	16.3	11.3
건설	14.6	18.1
숙박 및 요식업	12.6	11.1
운송	10.5	19.3
사업 서비스	7.2	5.6
개인 서비스	7.1	7.2
소매/유통	6.3	4.9
기타 모든 부문	25.4	22.5
합계	100.0	100.0

출처: 미국 중소기업청, OSC 분석 자료

### 대출 및 사업 유형

2021년 플러싱 지역에 제공된 모든 대출 중 절반이 약간 안 되는 수와 전체 대출 금액의 약 5분의 1은 대출을 처음 받는 이들이었다. 비교를 위해 퀸스 전체의 수치를 확인하면 제공된 모든 대출 중 절반이 약간 넘는 수와 전체 대출 금액의 약 3분의 1이 대출을 처음 받는 이들로 구성되었다. 제공된 모든 대출 중 절반이 약간 안 되는 수와 전체 대출 금액의 5분의 1 미만이 독립 계약자, 개인 사업자 및 자영업자에게 제공되었다.

### 정부 제공 경제적 피해 관련 재해 대출

인구 조사국 정의에 따른 퀸스 동네 14개 중에서 EIDL 과 EIDL 선불금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플러싱 지역 사업이다(EIDL은 13%, EIDL 선불금은 14.8%가 플러싱 지역 사업에 제공됨). 해당 지역은 뉴욕시 55개 지역에서 받은 EIDL 금액이 여덟 번째로 높은 지역이자 받은 EIDL 선불금이 네 번째로 높은 지역을 기록하였다.

### 정부 제공 레스토랑 재부양 기금

레스토랑 재부양 기금 전체의 22.4%는 플러싱 지역 사업에 제공되었으며 자치구 전체에 승인된 보조금 총액의 총 29.5%가 플러싱 지역 사업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지역 경제 내 레스토랑 산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뉴욕시 전체에 제공된 RRF 보조금 수의 5.1%, 그리고 보조금 총액의 3.5%를 차지하였다. 해당 지역이 받은 전체 보조금 총액의 83%는 스스로를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업으로 분류한 사업이 받아갔다. 보조금이 승인된 사업 중 33.9%는 여성 소유 사업이었다.

### 뉴욕시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

팬데믹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뉴욕시가 마련한 지원 조치에는 2020년 6월부터 오픈 레스토랑을 포함하도록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오픈 스트리트 레스토랑 프로그램에 따라 레스토랑은 허가증을 받고 인도, 차도 및 주차 공간까지 식사 및 음료 서비스 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 2021년 10월 11일 기준, 프로그램 개시 이래로 퀸스에 승인된 허가증 전체의 13%는 플러싱 지역에 발행되었다. 이는 인구 조사국 정의에 따른 자치구 내 14개의 지역 중 3번째로 높으며 뉴욕시 내 55개 지역 중 12번째로 높은 비율이었다.

---

## 전망

2020년 3월 코로나 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 플러싱 지역은 뉴욕시 내에서 현대적이고 다양하며 성공적으로 진화하는 동네의 한 예를 대표했다. 해당 지역의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사업 기회, 이민을 성장 패턴과 튼튼한 공동체 아이덴티티는 지난 20년 동안 역동적인 변화를 불러왔으며 활기찬 미래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팬데믹은 플러싱 지역의 일부 강점에 심각한 부담을 안겼으며 영업 제한은 레스토랑과 소규모 소매 상점에 특히 큰 타격을 입혔다. 교육과 보건 자원 역시 타격을 입었으며 아시아인 대상 범죄는 최근 높지는 않지만 충격적인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강력한 정부, 주, 시, 자치구 및 공동체 구호 작업이 지역 내 자산을 복원하고 새롭게 부활한 기회와 성장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지역 내 리더들과 주민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레스토랑 및 소매업들이 타격에서 회복하고 있고, 주택 관련 문제에도 새롭게 주목을 받으며 보건, 범죄 및 교통 문제를 완화하는 방법에 대한 토론도 진행되고 있다. 해당 지역의 회복과 함께 지속적인 소규모 사업 지원은 필수로 제공되어야 하며 플러싱 지역의 사람들과 공동체가 최대한 번영할 수 있도록 교육, 대중 교통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아주 많은 뉴욕시 내 지역의 경우가 그렇듯 해당 지역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공직자들과 다른 리더들이 지역사회를 회복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과 주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해당 지역의 다양성과 탄력성, 그리고 가능성을 지원하고 가꿀 필요가 있다. 팬데믹 이전 플러싱을 번창하게 했던 강점은 계속해서 가치 있는 자산으로 남아 있으며 이는 계속해서 해당 지역의 성공적인 부활을 복돋을 것이다.

---

뉴욕주 부감사관실 뉴욕시 담당 부서(Office of the State Deputy Comptroller for the City of New York) 작성

수석 지방 재정 분석가 홀리 클라크(Holly Clarke)  
수석 지방 재정 분석가 다이앤 다이아몬드(Diane Diamond)  
선임 지방 재정 분석가 패트리샤 멘도자(Patricia Mendoza)  
지방 재정 분석가 웨슬리 커비(Wesley Kirby)  
선임 지방 재정 분석가 마이크 아귈라(Mike Aguilar)

Office of the New York State Comptroller  
110 State Street, Albany, NY 12236  
(518) 474-4015 www.osc.state.ny.us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누르기:  
facebook.com/nyscomptroller  
트위터 계정 팔로우하기: @nyscomptroller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우하기: @nys.comptroller